

광양시, 내년부터 둘째·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출산을 저하 따른 인구문제 적극 대처 위해 추진 둘째 1천만 원·셋째 1500만 원으로 확대 지원

광양시는 출산을 저하에 따른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둘째, 셋째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한다. 시는 그동안 첫째, 둘째아 출산가정에 5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 넷째아 이상 2,000만 원을 5년간 분할 지원했으나,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경

제적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둘째, 셋째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는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1,000만 원을, 셋째 자녀는 매년 300만 원씩 5년간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둘째, 셋째아에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각각 500만 원 상당한 것으로, 체감도 있는 양육비 지원을 위해 추진한 만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지원하던 산후조리 비용을, 출산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산모에게 지원토록 지원요건을 완화

했다. 한편, 기존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광양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출생, 돌 2회에 걸쳐 지급)의 접수처를 보건소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일원화함으로써, 출생 신고 시 한 번의 방문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출산 지원시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사항은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영욱 통합보건의료과장은 "이번 출산장려시책의 확대 시행으로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열대 과일의 여왕' 보성서 키운 애플망고 본격 수확

18brix 이상 고당도 맛·향

보성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한 아열대 과수 애플망고가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다. 나무에서 완전히 익은 후 수확하는 보성 애플망고는 18브릭스 이상의 당도를 자랑하며 수입산보다 향과 맛이 월등히 우수하다. 수입산 애플망고는 식물방역법상 증열처리를 거친 후 수입이 되며, 운송 기간을 생각해 미성숙 상태에서 수확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먹었던 맛을 잃는 경우가 많다.

보성군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아열대과수 재배면적을 넓혀가고 있으며, 재배 품목도 다양화하고 있다. 2017년에는 조성면에 애플망고 재배 단지를 조성했으며,

이번에는 특량면에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명품 애플망고를 생산하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앞으로 애플망고 재배 농가를 확대하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면서 "현재 애플망고 뿐만 아니라 애플수박, 칸탈로프멜론, 납작복숭아 등 유망 신소득 작목을 발굴, 육성 중이며, 향후 아열대작목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성=김덕순기자

순천형 특화메뉴 '떡갈비&닭구이' 상품화로 세계화 나섰다

순천시, 메뉴 개발·상품화 전문교육 수료식 개최



순천시는 최근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순천형 특화메뉴 떡갈비&닭구이 개발 상품화' 전문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음식관광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 외식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생태미식 도시 순천'만의 특화된 메뉴를 상품화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역 외식업체 대표 2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지역의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떡갈비와 닭구이 9종의 메뉴를 개발하여 전수하였다. 따라서 외식문화 생존 전략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마인드교육 등을 병행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순천형 특화메뉴를 순천시 고유의 상품명으로 상표등록을 하고, 전수 교육에 참여한 외식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 후 순천형 떡갈비 지정업소 현판을 게시할 예정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K-pop, K-drama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이제는 K-garden, K-food가 주목받을 것이다."면서 "순천의 음식으로 K-food 페스티벌 추진하는 등 순천을 K-food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고흥군·4-H회, 회원 농가 교류 과제활동 60여명 대상...청년 중심 지역발전 이끄는 동력 생산 앞장



고흥군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 동안 고흥썬밸리조트(고흥군 도덕면)에서 4-H본부·4-H연합회원을 비롯한 4-H지도교사·학생회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고흥군 4-H회 회원 농가 교류 과제활동'을 가졌다.

4-H연합회, 4-H지도교사회, 학생 4-H회의 조직간 이해와 결속을 높여

청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을 이끄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번 과제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과제활동에는 4-H연합회원 대부분이 식량작물을 생산하여 1차 농산물 판매 위주로 영농을 영위하고 있어 체험농장 운영과 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형태의 농장운영과 관로개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선도회원의 농

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직화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갖고 상반기 4-H회의 사업을 돌아보면서 조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4-H정신을 지역사회로 전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도 가졌다.

전라남도4-H본부에서는 홍순민 회장과 이용정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김서진(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전국학생 4-H연합회장 임명장을 전달하였다.

고흥군은 2021년 6월 기준, 4-H본부 60명, 청년4-H회 43명, 학교4-H회 221명, 4-H지도교사회 15명 등 339명의 4-H회원이 농업과 교육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송정준 4-H본부 회장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도야와 청년들의 성장기 미래를 여는 열쇠"라며 "청소년들과 청년이 희망이 되는 전남 고흥을 만들기 위해 4-H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취재본부

여수시,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 운영 재개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18종 처리

여수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중단되었던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 운영을 1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은 업무시간 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



으며, 작년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된 때를 제외하고 연간 1,2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운영을 중단했으나, 전라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에 따라 시민 편의를 위해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은 매주 화요일 18:00~20:00 연중 운영하며, 여권, 주민등록, 가족관계, 부동산관련 민원 등 18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여수시는 "화요 야간 행복민원실 운영 재개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

